

오늘의 기사판

14일
▶제 10회 무안백련대축제= 무안군 일로읍 화산백련지 행사장. 15일까지. 버블마임 공연·마인마당극 '폼바폼바'등
▶제 3회 '은어아 놀자! 탐진강변에서' 탐진강 은어축제=15일까지 강진군 군동면 석교리 탐진강 둔치공연.
(15일)
▶제 61주년 광복절 기념식=오전 10시 광주시 민회관 앞.
▶전북 여성노동자회 담당 문화탐방=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소재원·가사문학관·송강정·죽녹원 등 관광지 탐방.
▶한여름밤의 호수공연 콘서트=14일(월) 오후 7시30분 서구 매월동 전경제.

한국전쟁고아 관련 사진전시회 14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시민홀

▶제 10회 전통 한국무용 경연대회 및 양산시 문화원 민속예술단 초청 시연회=15일(화) 오전 10시 진도군 고군면 회동 야외공연장.
▶오창현의 매직콘서트 '꿈의 대화'=15일(화) 오후 3시,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한국전쟁고아 관련 사진전시회=14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시민홀.
▶제 42회 전남도전 인상작품 광양순회전=19일까지 광양시 문화회관 제 1·2전실.
▶북한관련 도서 전시회=20일까지 일곡도서관 1층 로비. 북한 도서 150여권 전시. 북한 영화 상영.
▶팬스메탈 그룹전=16일까지 광주시세계갤러리. '도구열전'을 주제로 금속 공예 작품 전시. 작가 19명 참여.
▶파랑새는 있다=16일까지 롯데화랑. 동산대

조진호 교수의 사진전으로 분교 학생들의 꿈을 담은 작품 16점 전시.
▶중공작가 탕마오홍의 'Sunday'전=2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인 탕마홍씨가 제작한 대형 애니메이션 작품 전시.
▶동양척식회사 복원기념 특별사진전=목포시 중앙동 2가 6번지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시가 수집한 사진 200점 전시. 올해 말까지.
▶제 7회 무등산 사랑전=31일까지 자미갤러리. 한국화·서양화·문인화 등 51점.
▶일곡도서관 동아리 회원전=31일까지 일곡갤러리. 입체 POP디자인 30점·단인형 30점·링크 20점 등 회원들의 작품 전시.
▶'그림속 동물 읽기'전=20일까지 시립미술관. 하정웅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 중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 45점 전시 062-525-096

광주일보가 실시한 23·24회 뉴스퀴즈 추천 결과, 김영미 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김씨는 13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추천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이 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23·24회 뉴스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317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최홍준 경사와 윤승철 경장이 입회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위 ▲김영미·광주시 북구 운암동
2위 ▲조일운·장성군 남면

뉴스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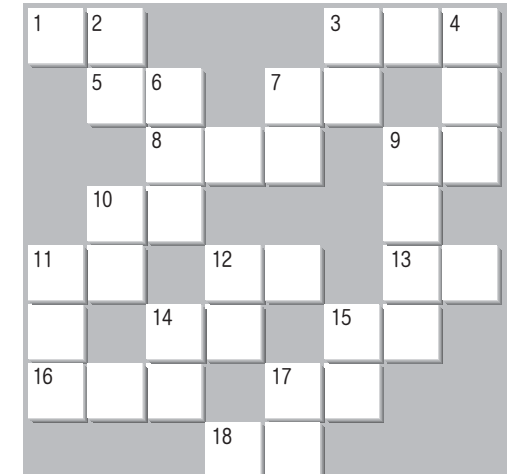
25. 최근 개봉한 이 영화가 기존의 한국영화계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620개 상영관에서 출근 여매물 선두를 고수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역대 최단 기간에 1천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든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① 괴물 ② 한반도 ③ 다세포소녀 ④ 각설왕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당첨자와 고급진공책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지난주 정답>
23회 - ① 아리랑 2호, 24회 - ① 이승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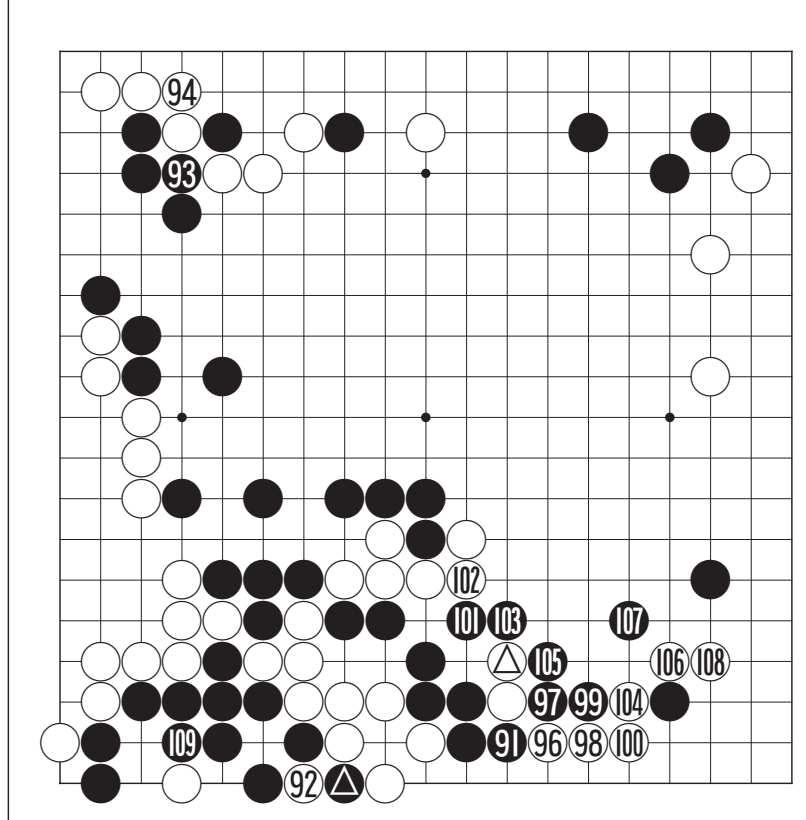
함께 풀어봅시다 <214>

→ 가로풀이
1.삼복에서 마지막 복날. 3.기간이 정해져 있음.→ 무기한. 5.광장하여 볼 만한 경관. 만고에 그런 ~은 없을 것이다. 7.쏘았을 때 실제로 효력을 나타내는 탄알. 관총의 탄창에는 ~이 세 개 들어 있었다. 8.간설 등의 현장에서 지표 각 지점의 위치와 그 지점들 간의 거리를 구하고 지형의 높낮이 등을 재는 기구. 9.집 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 ~을 가꾸다. 10.어처구니가 없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북터져 나올. 또는 그 웃음. 발표자의 엉뚱한 대답이 청중들의 ~를 자아냈다. 11.전쟁을 반대함. 12.던져 넣음. 사람이나 물자,자본 등을 필요한 곳에 넣음. 학생들은 경찰력 ~에 강력히 반발했다. 13.작각보다 작은 각.→둔각. 14.시간이 지나감. 또는 일이 되어 가는 과정. 교섭 이후의 ~를 보고하겠습

니다. 15.손바닥의 살갓에 줄무늬를 이룬 선. 16.높은 온도로 광석을 녹여서 쇠붙이를 뽑아내는 가마. 17.귀와 눈을 아울러 이르는 말. 또는 주의나 관심. 남의 ~을 피하다. 18.찬국이나 동치मित국 같은 것에 말아먹는 국수. 함흥식과 평양식이 있다.
↓ 세로풀이
2.못차림. ~ 검사를 하다. 3.조흔한 곳에 맞지 아니하고 빛나간 탄환. 4.환의사가 병자를 치료하는 병원. 6.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한 곳. 군대에서 OP(Observation Post)를 이르는 말. 레이다 ~, 항공 ~. 7.실제의 기능이나 기술. 이론과 ~를 겸비하다. 미대 입학 시험에서는 ~ 시험이 중요하다. 9.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금융 기관에 맡기고 정한 기간 안에 찾는 약했다는 약속으로 하는 예금. 10.실제의



주 물 마 름 모 반
유 루 눈 보 라
병 무 청 종
더 이 루 타
수 위 세 동
학 세 동
금 여 유 래 유
행 운 아 시 럽
<함께 풀어봅시다 213회 정답>
는 부분. 한국 정치사의 ~.
▲지난주 정답자
정태성·여수시 학동
손규삼·순천시 저전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제15회 光日盃
광주 전반기 바둑대회
독수를 간과한 집착 제6보(91~109)
백 김 영 수 5단 <빛고을교사회>
흑 박 광 주 5단 <포스코>
백 96는 김 영 수 5단이 전투에 강한 일면을 보여 준다.그런 다음 패를 하다가 백 96에 맞서겠다는 것이 김 5단의 각본이다. 패에 급급한 박광주 5단이 이 각본에 말려들어 대세를 그르치게 된 것은 이 패가 이단패라는 중압감이 그만큼 심했던 탓이다.
백 96에 맞섰을 때 박 5단은 팻감이러니 하고 무심코 97로 끊었는 데 이것이 백 98로 느는 독수를 간과한 대약수가 되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붙여넣는 것이 정수였으며 그런 다음 패를 따내면 3으로 잡아 5, 7로 역으로 버리는 발상을 해야만 했다. 이것이면 거꾸로 대세를 휘어잡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실질은 한 수로 해소도 안되는 패에 집착하다가(물론 크기는 하다) 98로 느는 수를 당해버렸다. 108까지 바뀌치기가 되고나서도 패가 남아서는 흑의 대실패. 95-9의 곳.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삼성화재배 예선 12일 시작
우승 상금 2억원의 제11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 오픈 통합 예선이 지난 12일 시작됐다.
대회 첫 날인 12일, 조정호 아마 5단은 중국 황이중 6단을 물리치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 밖에 한국은 윤성현 9단이 6판 6승, 박승현 5단이 차오 다위안 9단을 각각 물리쳤으며 중국의 왕시 5단, 치우원 7단은 각각 대만의 천이다 3단, 천귀성 5단을 꺾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인 299명이 출전해 총 5라운드로 치러지며 16일 본선 진출자 16명이 결정된다. 시드 배정자를 포함한 32명은 다음달 6일부터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4일(음 7월 21일 乙亥)
子 36년생 일고는 있으나 좋은 날은 곧 온다. 48년생 혼자하면재미가 없으니 주변과 어울려라. 60년생 뜻밖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잃지 마라. 72년생 남의 말을 경청하라. 84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11, 41
丑 37년생 처음 가는 길이니 살펴서 행동해야 한다. 49년생 지인의 협조가 있다. 61년생 순공에 한해하나 역풍에 대비는 해야 하리라. 73년생 처거나 시가 편에 예사가 생길 수 있다. 85년생 순공과 역풍이 같이한다. 행운의 숫자: 20, 38
寅 38년생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가 보인다. 50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키니 조심은 잃지 마라. 62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오욕은 없으리라. 74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으나 큰 기대는 거두어라. 행운의 숫자: 12, 30
卯 39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을 조심하라. 51년생 정신이 혼미하니 심상의 안정을 취하라. 63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럽다. 75년생 의외로 재물이 생기고 영연 승진하는 격이나 이성문제는 조심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22, 34
辰 40년생 바깥엔 일손을 놓고 가족을 살펴봐라. 52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남편의 건강도 살펴봐라. 64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나 내 것이 아니다. 76년생 자기 입을 조심하라 벌여놓은 신뢰가 무너질까 걱정이다. 행운의 숫자: 21, 32
巳 41년생 구설이 따르고 신체의 불균이 발생할 수도 있다. 53년생 주변과의 이심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65년생 특별한 건강에 유념해야 하리라. 77년생 일 거수 일 무족을 조심하고 마음까지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18, 35
午 42년생 생활의 무료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변화를 가져라. 54년생 암모양을 하나 잡지는 않다. 66년생 하는 일마다 불평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다. 78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결과는 기대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14, 28
未 43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나니 생각하며 행하라. 55년생 의외의 협조자를 만날 수도 있다. 67년생 불연이면 친지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으니 이해하며 지내라. 79년생 부부의 애정이 소폭소폭 살아나리라. 행운의 숫자: 16, 17
申 44년생 많은 갈등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56년생 재물과 처사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 중정의 마음을 가져라. 68년생 남편과의 불만과 불평이 나타나니 본인의 잘못이다. 80년생 서류와 뒷거래로 인해 불균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16, 17
酉 45년생 순유에 항해하는 격이다. 57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라. 69년생 기력이 쇠하니 폐장을 살펴봐라. 81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있고 예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변을 살펴봐라. 행운의 숫자: 01, 43
戌 46년생 학문의 발전이 있다. 58년생 또 다른 성공의 기회가 마련된다. 70년생 부부간의 연정을 현명하게 넘겨라. 불연이면 극한 상황도 예상 못한다. 82년생 급진 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 직업 변경도 우려된다. 행운의 숫자: 02, 31
亥 47년생 아무저리는 있으나 조그맣다. 59년생 절대 손윗사람과 신사나 동업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자제해 살펴봐라. 71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83년생 일출일몰하는 병기치상사상상상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23, 42

굿모닝 잉글리쉬 <710>

Why hasn't she turned up yet?
왜 아직까지 그녀는 나타나지 않는 거지?
A: Why hasn't she turned up yet? How come?
B: I wish I could know that answer.
A: She's always late. I don't understand it.
B: Oh, here she comes.
A: 왜 아직까지 그녀는 나타나지 않는 거지? 어떻게 된거야?
B: 그 답을 알 수 있다면 좋겠네.
A: 그녀는 항상 늦어. 난 그런 것, 이해할 수 없어.
B: 아, 그녀가 온다.
turn up : 나타나다 (=show up)
I wish I could ~ : ~ 할 수 있다면 좋겠네.
- I wish I could swim like a fish.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 있다면 좋겠네.)
I wish I could know that answer.
= I wish I knew that answer.

오하이오 니혼고 <710>

實(じつ)は私は、地理音痴なもので...
사실 저는 지리감각이 둔해서...
A: あれ、そっちへ行ったら、貿易(ぼうえき)センターには行きませんよ。
B: あ、そうですか? てっきりこっちだと思(おも)って。
A: 貿易(ぼうえき)センターだったら、そこを右(みぎ)に曲(ま)がって、すこし戻(もど)らないと...
B: いやあ、實(じつ)は私は、地理音痴(ちりおんち)なもので...
A: 저어? 그쪽으로 가면 무역센터건물로는 못 가요.
B: 아, 그런가요? 틀림없이 이쪽이라고 생각해서...
A: 무역센터건물이려면 거기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조금 되돌아오지 않겠나...
B: 아, 사실 저는 지리감각이 둔해서...
地理(ちり): 지리
音痴(おんち): 특정한 감각이 둔한사람
貿易(ぼうえき): 무역
てっきり: 틀림없이 꼭
戻(もど)る: 되돌아오다

니하오 퉁구워 <428>

不親(不親)長城(長城)非好(非好)漢(漢)
만리장성에 오르지 않으면 사내대장부가 아니다
A: 除了(除了)敬(敬)亭(亭)以外(以外), 还有(还有)什么(什么)好(好)玩(玩)的(的)地方(地方)?
B: 除了(除了)敬(敬)亭(亭)以外(以外), 还有(还有)什么(什么)好(好)玩(玩)的(的)地方(地方)?
C: 除了(除了)敬(敬)亭(亭)以外(以外), 还有(还有)什么(什么)好(好)玩(玩)的(的)地方(地方)?
D: 除了(除了)敬(敬)亭(亭)以外(以外), 还有(还有)什么(什么)好(好)玩(玩)的(的)地方(地方)?
E: 除了(除了)敬(敬)亭(亭)以外(以外), 还有(还有)什么(什么)好(好)玩(玩)的(的)地方(地方)?
F: 除了(除了)敬(敬)亭(亭)以外(以外), 还有(还有)什么(什么)好(好)玩(玩)的(的)地方(地方)?
G: 除了(除了)敬(敬)亭(亭)以外(以外), 还有(还有)什么(什么)好(好)玩(玩)的(的)地方(地方)?
H: 除了(除了)敬(敬)亭(亭)以外(以外), 还有(还有)什么(什么)好(好)玩(玩)的(的)地方(地方)?
I: 除了(除了)敬(敬)亭(亭)以外(以外), 还有(还有)什么(什么)好(好)玩(玩)的(的)地方(地方)?
J: 除了(除了)敬(敬)亭(亭)以外(以外), 还有(还有)什么(什么)好(好)玩(玩)的(的)地方(地方)?

한자 이야기 <328>

酒道(주도)
술 주, 길 도
주도(酒道)는 술자리에서 지키거나 행하여만 되는 도리, 즉 술자리의 예의이다. 이 주도는 마을의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모시고 술 마시는 예법을 익히는 함음주례(鄕飲酒禮)에서 나왔다. 이 경우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아지지만 지나칠이 없는 바른 몸가짐과 절도를 지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술은 어른 앞에서 배워야 한다'는 말이 나왔으며, 어른 앞에서 고개를 돌려 술을 마시는 것도 함음주례의 예법이다.
송강(松江) 정철은 술을 권하는 노래인 장진주사(將進酒辭)라는 가사(歌辭)에서 "한잔 먹으세, 또 한잔 먹으세, 꽃을 꺾어 씌어 해가며, 무진무진 먹으세 그러"라고 하였다. 술 한잔에 꽃 한송이 꺾어 놓으면서 술을 마시는 것은 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일이다. 이아발로 주선(酒仙)의 경지가 아닐까?
술친구를 주당(酒黨)이라고 한다. 좋은 주당이라면 억지로 친구들에게 술을 먹여서는 곤란하다. 처음에는 예의를 권하고(예칭: 禮請), 이에 사양(예사: 禮辭)하면, 두 번째 굳이 권하지만(고청: 固請), 이에 다시 사양(고사: 固辭)하면, 세 번째까지는 억지로 권해보았다가(강청: 強請), 다시 이것도 사양(중사: 終辭)하면 더 이상 권하지 않는 것이 좋은 주당일 것이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 ☎ 228-2545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예민(韓藝嫻)>
조선대학교 교편연구원 ☎ 230-6505